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기 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Children's Perceived Maternal Acceptance-Rejection and Self-evaluation on Learned Helplessness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사 손낙주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최보가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Lecturer : Son, Nak-Ju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Prof. : Choi, Bo-Ga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children's perception of maternal acceptance-rejection and self-evaluation on learned helplessness.

The Subjects were 371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The helplessness scale, PAQ, PARQ were used.

The data was analyzed by factor analysis, MANOVA, ANOVA and path analysis which was mad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children's perceived maternal accepta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parent's education level. In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2. In the children's self-evaluation, there were an interaction effect determined by

the child's sex and the mother's education level, and a main effect of mother's education level.

3.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mother's education level.

4. Children's perceived maternal acceptance ($\beta = -0.36$, $p < .01$) and rejection ($\beta = 0.17$, $p < .01$) had a direct impact on their self-evaluation. Their self-evaluation ($\beta = 0.54$, $p < .01$) and perceived maternal rejection ($\beta = 0.16$, $p < .01$) had a direct impact on learned helplessness, but perceived maternal acceptance didn't have a direct impact on learned helplessness.

I. 서론

가정은 아동의 성격과 행동발달에 강력하고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그 중에서도 부모는 직접적인 자극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환경을 조작하고, 다른 환경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과 태도는 자녀에게 세상과 환경에 대한 지각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양육행동의 일반적인 차원은 Symonds(1939)의 연구이래 상세하게 연구되어왔으며, 여러 학자들은 대부분의 인간사회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과 통제라는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Rohner, 1986). 그러나 Maccoby(1980)는 부모양육행동에서 온정과 통제가 아동의 행동과 성격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 두 요인이 부모의 사회계층과 아동의 연령, 아동의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사회계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이 부모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완숙, 1983),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인숙, 1989; 이영주, 1990).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에서 아동의 성별의 영향은 연구 결과에서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Rohner & Pettengill, 1985), 6-12세 사이의 아동은 부모의 온정과 통제를 유사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hner, 1986). 이러한 결

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중 온정과 통제가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이나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질과 같은 여러 요인을 결부시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Rothbaum(1986)은 지금까지 보고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11개의 연구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9개의 연구에서 온정차원의 부하량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온정차원중 수용 요인이 부모양육행동에서 최대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중 통제차원은 아동의 행동을 예언하는데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또한 통제요인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연, 1987).

Rohner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아동의 성격과 행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수용-거부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개념적으로 온정차원을 구성한다. Finney(1961)는 수용적이지 못한 어머니가 염세적인 자녀를 만들고, 자녀의 동기에 대한 강화를 지속적으로 결핍시킴으로서 아동으로 하여금 인생에서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도록 일반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Robertson과 Symonds(1989)는 부모의 양육행동중 부모의 거부적 태도가 아동의 낮은 자존심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Kitahara(1987)는 아동기의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Rohner(1975, 1980, 1990)는 101개 나라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수용-거부에 따른 아동의 행동과 성격에 관하여 문화간 비교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부모로부터 거부당한다고 지각한 아동들은 수용 받는다고 지각한 아동들에 비해 적개심, 공격성, 수동적 공격성, 의존심,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기적절감과 같은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수용과 애정을 받는다고 지각한 아동들은 높은 자존심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양육행동에서 온정차원이 아동의 자존심과 자기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Rohner(1986)는 아동의 행동, 인지, 정서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수용-거부를 강조하여 부모수용-거부이론(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을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아동의 사회화에 관한 것으로 부모의 수용은 온정차원이라는 연속선상의 한 쪽 끝에 위치하고, 부모의 거부는 다른 쪽 끝에 위치한다. 수용적인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신체적, 언어적 애정을 나타내는 부모이고 거부적인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 애정의 결여나 철회로 묘사된다. 그리고 거부는 적대감과 공격의 형태로 표현되거나 무관심과 소홀의 형태로 표출된다.

PAR이론에서는 아동에게 가장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자녀는 부정적인 자기(self)와 자기평가 및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은 자신의 행동으로는 환경이나 타인 또는 주위 인물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더욱 저하시켜 결국 무력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학습된 무력감을 느끼는 아동에게서 관찰되는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부정적인 자기적절감, 낮은 자아존중감등은 흔히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거부를 받은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된 무력감이란 원래 Seligman, Maier, 및 Geer (1968)가 개를 실험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혐오사상을 반복해

서 제시하였을 때, 그 개는 회피가 가능한 혐오상항에 직면했을 때에도 회피행동을 시도하지 않고 무력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무력감이 학습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무력한 상태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일부의 우울증과도 유사하다고 한다. 김성일(1993)은 부모로부터 계속적인 거부를 경험한 아동들은 자신의 행동과 부모의 반응사이의 무관성을 경험하게 되어 자신의 행동으로는 부모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통제불가능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제불가능성은 세상사나 주변세계에 대한 통제불가능으로 일반화되어 자신의 힘으로는 주변 세계나 세상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어 동기적,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의 무력감은 자신의 반응과 결과간의 비수반성뿐만 아니라 통제불능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이나 해석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한다(백용매 & 김영환, 1988). 즉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혐오적 사상에 노출되는 것 자체보다는 혐오적 사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Abramson, Seligman, 및 Teasdale(1978)은 학습된 무력감의 수정모형(Reformulated Learned Helplessness Theory)을 제안하였다. 수정된 학습된 무력감 모형에서는 실패 또는 비수반성에 대한 귀인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이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귀인시킬 때 무력감이 나타나고, 실패의 원인이 개인생활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할 때 무력감은 일반화되며, 실패의 원인이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무력감은 만성화된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이나 주변인물에 대하여 개인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그들에게 닥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지배를 받는다고 지각하면 아동은 자기인생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요구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아동의 심리적 세계

와 자신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고 믿는 아동들의 심리적 세계는 크게 다를 것이다(김성일, 1993).

Dweck 등(1976, 1978, 1980)은 아동을 대상으로 실패경험 후의 feedback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그들의 통제 불가능에 대한 원인의 해석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귀인양식은 아동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인인 부모나 교사로부터 오는 feedback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아동에게 있어서 학습된 무력감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거부, 무시, 적대적인 태도를 통해 계속된 좌절을 경험하였을 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가 형성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지는 통제가능한 다른 상황에까지 일반화되어 무력감이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어떤 일에 대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적극성과 능동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할 때 적극성과 능동성이 줄어들고 이러한 실패가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귀인 시킬 때 미래에 대한 기대와 동기가 감소됨은 물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Diener & Dweck, 1978, 1980). 김해옥(1989)은 아동에게 성공에 대하여 낮은 기대감을 갖도록 반복하여 설명할 경우, 나중에는 숙달가능한 과제에서도 성공에 대한 동기를 갖지 못하게 되어 학업뿐 아니라 개인의 전체 생활 영역에서도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된 무력감이 특정과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학습된 무력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업 상황에서 아동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Diener & Dweck, 1978; Fincham, et al., 1989; Ho-man, 1990; Hwang, 1992)와 학습결손에 관한 연구(김정규, 1989; 신기명, 1989; Weisz, 1981), 그리고 실패 경험에 직면했을 때 성취목표를 향한 인내에 관한 연구(Fincham & Hokoda, 1987; Friedlander, Traylor & Weisz, 1986), 그리고 아동기 우울을 연구(Di Tosto, 1992; Venard, 1993)하는데 적용되어 왔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된 무력감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수용-거부와 자기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 두 요인이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부모양육행동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1.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2. 성별과 부모 학력에 따라 아동의 자기 평가는 차이가 있는가?
3. 성별과 부모 학력에 따라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은 차이가 있는가?
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자기 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 7개구의 각 1개 국민학교 5, 6학년 학생 371명이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모의 수용-거부를 측정하는 PARQ(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와 아동의 자기평가척도와 무력감 척도 및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1) PARQ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는 부모의 수용-거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Rohner(1978)가 고안한 것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N (%)	변 인	구 분	N (%)
성 별	남	185 (49.9)	연 령	10세	27 (7.2)
	여	186 (50.1)		11세	169 (45.2)
학 년	5학년	178 (47.6)		12세	177 (47.3)
	6학년	193 (52.4)		13세	1 (0.3)
아버지의 연령	39세이하	63 (17.0)	어머니의 연령	30~34세	20 (5.4)
	40~44세	217 (58.5)		35~39세	207 (55.8)
	45~49세	68 (18.3)		40~44세	115 (31.0)
	50세이상	23 (6.2)		45세이상	29 (7.8)
아버지의 학력	중졸이하	74 (19.9)	어머니의 학력	중졸이하	115 (31.0)
	고졸	157 (42.3)		고졸	172 (46.4)
	전문대졸이상	140 (37.7)		전문대졸이상	84 (22.6)

특히 아동용 PARQ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적절한 언어로 그들의 부모가 현재 그들을 취급하는 방식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PARQ는 지난 15년 동안 국제적으로 100개 이상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9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Byunchai, Hahn (1980)이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여 차이점 살펴서 수정한 후 번역본이 영어와 똑 같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 결과 한국어판 척도가 구성되었다. 원래 PARQ는 부모 온정차원을 나타내는 수용/애정(20), 공격/적대감(15), 무시/무관심(15), 미분화된 거부(10)의 4개 척도 60문항이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우리 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 분석한 결과 수용(16문항)-거부(19문항) 2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수용적인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신체적, 언어적 온정을 나타내는 부모로 정의되며, 거부적인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 애정, 온정이 없거나 나타내지 않는 부모로 정의된다. Rohner (1990)등이 보고한 첫 번째 타당화 연구에서 개별 Scale의 Cronbach α 는 0.86-0.95 범위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용, 거부척도의 Cronbach α 는 0.88, 0.86이었다.

2) 자기 평가 척도

아동의 자기 평가 척도는 Rohner(1978)가 7가지 행

동 경향성 즉 의존성, 정서적 안정감, 정서적 반응성, 적대감, 자아존중감, 자기적절감, 세계관에 관한 아동의 개인적인 지각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한 PAQ(Personality Assessment Questionnaire)에서 자기 평가 척도인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자기적절감(self-adequacy) 요인 각 6개 항목씩 12항목을 사용하였다. 자기평가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각각 부정적 자아 존중감, 부정적 자기적절감을 나타낸다. 자아 존중감은 가치의 견지에서 자신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적 평가를 말하며 자기적절감은 매일의 일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매일의 문제를 만족스럽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평가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평가 척도는 Byunchai, Hahn(1980)등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수정한 후 번역본이 영어와 똑 같도록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제작한 한국어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평가 척도는 Cronbach $\alpha=0.80$ 이었으며, Rohner등(1990)의 연구의 $\alpha=0.81$ 과 비슷하였다.

3) 무력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력감 척도는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CDI(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oyanaki(1984)의 무력감 척도, 水口式內

外統制檢査(1985), Eysenck와 이현수(1985)의 성격차원 검사, 신기명(1990)의 학습된 무력감 척도에서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102개 항목을 선정하여 likert식 4점 척도의 예비연구용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 질문지를 1995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 사이에 대구 시내 2개 국민학교 5, 6학년 510명에게 배부하여 50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한 문항에 두 가지 답을 표한 것, 빠뜨린 응답이 있는 것, 무성의하게 응답한 것 등을 제외하고 461부(남:252, 여:209)의 자료를 통계처리하였다. 자료는 spss pc+로 요인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4개 요인 32문항을 선정하였다. 무력감의 하위요인은 지속성 결여(10), 자신감 결여(8), 통제력 결여(8), 수동성(6)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력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0.89$ 였다. 그리고 이 척도는 학습된 무력감을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BDI와의 공인 타당도는 $\gamma=0.70$ 이었다.

3. 절차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앞서 질문지의 문항 이해도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점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5년 7월 6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질문지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완성된 질문지는 대구시 7개구의 각 1개 국민학교에서 5, 6학년 한 학급씩 500명을 무선 표집하여 1995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477부를 회수하여 응답이 누락된 자료, 부실 기재한 것, 편부모 자녀의 자료를 제외한 총 371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들은 빈도 및 백분율로 산출했으며 각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의 학력, 아동의 자기평가 및 무력감과 관계에 관한 자료들은 MANOVA, ANOVA, regression analysis를 통한 path analysis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1. 자녀 성별과 부모 학력에 따른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

1) 자녀 성별과 아버지 학력에 따른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

〈표 2〉 어머니 양육행동의 다변량 분석 결과

source	wilks -value	Approx. F	Hypoth Df.	Error Df.	P
성 별	0.98179	3.37549	2.00	364.00	0.035
아버지학력	0.96076	3.67912	4.00	728.00	0.006
상호작용효과	0.98031	1.81854	4.00	728.00	0.123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에서는 자녀 성별($F=3.38, P<.05$)과 아버지 학력($F=3.68, p<.01$)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각 효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아버지 학력에 따른 단변량 분석 결과

종속변인	Hypoth MS	Error MS	F
어머니-수용	.168977	.28318	5.96715*
어머니-거부	.15076	.28828	.52296

* $p<.05$

〈표 3〉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각된 어머니 수용에서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5.97, p<.05$) 아버지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 집단($\bar{X}=3.42$)이 중졸이하 집단의 자녀($\bar{X}=3.16$)보다 지각된 어머니 수용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자녀 성별에 따른 단변량 분석 결과

종속변인	Hypoth MS	Error MS	F
어머니-수용	0.01913	.28318	0.06755
어머니-거부	1.42868	.28828	4.95584*

* p < .05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각된 어머니 거부에서 자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4.96, p < .05), 여아(\bar{X} =1.60)보다 남아(\bar{X} =1.73)가 거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녀 성별과 어머니 학력에 따른 지각된 양육행동

〈표 5〉 어머니 양육행동의 다변량 분석 결과

Source	wilks -value	Approx. F	Hypoth. Df	Error Df	P
성 별	0.98859	2.10037	2.00	364.00	.124
어머니학력	0.93747	5.97165	4.00	728.00	.000
상호작용효과	0.99094	.83012	4.00	728.00	.506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에서 어머니 학력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F=5.97, p < .01), 어머니 학력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어머니 학력에 따른 단변량 분석 결과

종속변인	Hypoth MS	Error MS	F
어머니-수용	2.78416	.27776	10.02345**
어머니-거부	.36515	.28797	1.26802

** p < .01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각된 어머니 수용에서 어머니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02, p < .01).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 집단의 자녀(\bar{X} =3.54)가 중졸(\bar{X} =3.23)과 고졸집단 어머니의 자녀(\bar{X} =3.26)보다 부모를 더 수용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2. 자녀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아동의 자기 평가

자녀 성별과 부모 학력에 따른 아동의 자기 평가의 변량분석 결과 자녀성별과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녀 성별과 어머니 학력에 따른 자기 평가의 변량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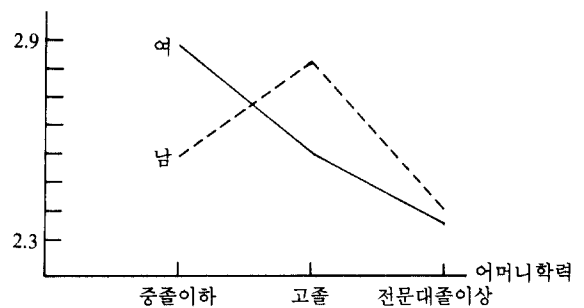
〈표 7〉 자기 평가의 변량분석결과

Source of Var.	SS	DF	MS	F
성 별	.059	1	.059	.116
어머니학력	7.046	2	3.523	6.956**
상호작용효과	4.083	2	2.042	4.032*
Residual	184.840	365	.506	
Total	195.971	370	.530	

** p < .01, * p < .05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 평가에서는 자녀 성별과 어머니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F=4.03, p < .05)와 어머니 학력의 주효과(F=6.96, p < .01)가 유의하였다. 아동의 자기 평가에 대한 어머니 학력과 성차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과 같다.

자기평가



〈그림 1〉 자기평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자녀 성별과 어머니 학력 상호작용 효과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자기평가에 대한 성차와 어머니 학력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자기평가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Contrast	SS	DF	MS	F
성차 @ 중졸이하	2.1507	1	2.1507	4.0282*
성차 @ 고졸	1.9320	1	1.9320	4.0645*
성차 @ 전문대졸이상	.0596	1	.596	.118
어머니 학력 @ 남	5.2152	2	2.6076	5.1010**
어머니 학력 @ 여	5.9138	2	2.9569	5.8942**

** p < .01, * p < .05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 평가에 대한 성차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차@중졸이하(F=4.02), 성차@고졸(F=4.06)에서만 유의하고, 어머니 학력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 학력@남(F=5.10), 어머니 학력@여(F=5.89) 모두 유의하였다. 남아의 경우는 중졸이하(\bar{X} =2.59)와 전문대졸이상(\bar{X} =2.40) 어머니의 자녀보다 고졸 어머니의 자녀(\bar{X} =2.82)가 더 부정적으로 자기 평가하였으며, 여아의 경우는 고졸이상 어머니의 자녀(\bar{X} =2.60)보다 중졸이하 어머니의 자녀(=2.86)가 더 부정적으로 자기 평가하였다.

3.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

자녀 성별과 부모 학력에 따른 학습된 무력감의 변량 분석 결과 자녀 성별과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녀 성별과 어머니 학력에 따른 학습된 무력감의 변량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학습된 무력감의 변량 분석 결과

Source of Var.	SS	DF	MS	F
성 별	.042	1	.042	.134
어머니학력	5.480	2	2.740	8.686*
상호작용효과	.579	2	.290	.918
Residual	115.136	365	.315	
Total	121.195	370	.328	

* p < .05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학습된 무력

감은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8.69, p < .05) 어머니 학력이 중졸이하(\bar{X} =2.47)와 고졸(\bar{X} =2.54)인 경우보다 전문대졸 이상(\bar{X} =2.23)인 경우,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이 낮게 나타났다.

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양육행동과 자기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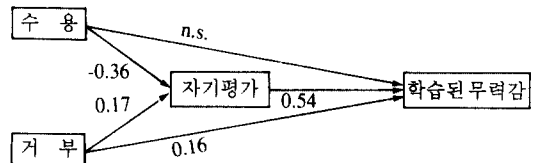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 행동과 자기 평가 및 학습된 무력감간의 인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자기 평가를 종속 변인, 지각된 어머니 양육 행동을 독립 변인으로 그리고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을 종속 변인, 자기평가와 지각된 어머니 양육 행동을 독립 변인으로 한 2차례의 중다회귀 분석 절차를 통한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으며, 경로 도형은 〈그림 2〉와 같다.

〈표 10〉 무력감에 대한 자기 평가와 부모 양육 행동의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B	Beta	누적R ²
어머니수용	자기평가	-0.481	-0.356**	0.206
어머니거부	자기평가	0.223	0.165**	0.223
자기평가	학습된 무력감	0.422	0.536**	0.357
어머니거부	학습된 무력감	0.174	0.164**	0.380

(n=371)

** p < .01



〈그림 2〉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 자기평가 그리고 학습된 무력감의 경로도형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지각된 어머니의 수용(β = -0.36), 지각된 어머니의 거부(β = 0.17)이며 설명력은 각각 20.6%, 1.7%였다. 그리고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자기 평가와($\beta=0.54$) 지각된 어머니의 거부($\beta=0.16$)로 설명력은 각각 35.7%, 2.3%였으며, 어머니의 수용은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민학교 5, 6학년생 대상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수용-거부) 및 자기 평가와 학습된 무력감이 자녀 성별 및 부모 학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 및 자기 평가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수용-거부)이 자녀 성별과 부모 학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어머니 수용에 있어서는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지각된 어머니 거부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부모 모두 전문대졸이상 집단의 자녀가 어머니의 수용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취한다는 공인숙(1989), 이원영(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Rohner, Hahn 및 Rohner(1980)가 한국계 미국 이민가족을 대상으로 노동계층과 중류계층가족 아동의 부모지각과 자기평가를 비교한 결과, 중류계층 가족의 아동이 노동계층 가족의 아동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온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적 지위와 부모학력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보다는 남아가 어머니의 거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많은 성취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Frankel과 Rollins(1983), Hoffman(197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아가 부모로부터 더 많은 성취 압력과 기대를 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거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여

아보다 남아의 활동수준이 높고 공격적인 행동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체벌과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 부모로부터 이런 체벌과 통제를 받을 때 남아는 부모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남기(1995)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달리 부모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동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어머니 수용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 양육행동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성에 따른 차이와 지각된 어머니 거부에서 성차의 영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자기평가가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자기평가에서 성별과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고, 성별과 어머니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와 어머니 학력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즉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에는 남아보다 여아가 더 부정적으로 자기평가하였으며 고졸인 경우에는 여아보다 남아가 더 부정적으로 자기평가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학력이 중졸이하와 고졸인 경우에 성차가 유의하였다. 남아의 경우는 중졸이하와 전문대졸이상 어머니의 자녀보다 고졸 어머니의 자녀가 더 부정적으로 자기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는 고졸이상 어머니의 자녀보다 중졸이하 어머니의 자녀가 더 부정적으로 자기평가하였다. 이는 부모의 교육정도가 아동의 성격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정휘정(198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아동의 자기평가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살펴 볼 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더욱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와 더 깊은 상호관계 속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핌으로 아버지-자녀관계보다 어머니-자녀관계가 더 우호적이며 이런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아동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평가 즉 어머니의 반영적 효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Hurlock(1978)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리고 여

아와 달리 남아의 경우 중졸이하와 전문대졸이상 어머니의 자녀보다 고졸 어머니의 자녀가 더 부정적으로 자기평가한다는 사실은 중졸이하와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에 비해 고졸의 어머니가 아들을 자신의 대리성취의 대상으로 성취에의 기대와 욕구를 더 강하게 표현하지만, 자녀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이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있어서 성별과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어머니 학력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학습된 무력감에서 성취에 대한 결과는 연구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난다. 아동의 학습된 무기력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남아보다 여아가 무기력결손에 더 영향받기 쉽다는 Dweck 등(1976, 1978, 198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학습된 무력감의 발달에서 생물학적 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개인이 소유한 남성적 특성 또는 여성적 특성의 정도 즉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무기력에 감응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김영희(1989)의 연구 결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예컨대, 최근 우리 나라의 가족상황에서 2자녀 가족이 보편화되고 딸, 아들 구별없이 자녀의 성취를 기대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남녀평등사상에 기초한 자녀 사회화로 인하여 학습된 무력감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서도 지각된 어머니 수용과 자기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습된 무기력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살펴볼 때, 어머니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발달의 측면에서 최초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여러 연구자들(Richman, et al., 1992)의 결론과 일치한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 및 자기평가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수용-거

부가 아동의 자기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수용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기평가는 긍정적이며, 어머니의 거부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기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심리적 특성사이에는 상관이 있고, 아동의 자아존중은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모방효과와 반영효과에 의해 형성된다는 김경연(1987)의 결론과 일치하며,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수용-거부)이 자녀의 행동, 인지,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련의 연구(Campo & Rohner, 1992; Rohner, 1975, 1980) 결론과도 일치한다. 이로써 어머니 양육행동은 문화와 연령을 초월하여 자녀의 성격특성에 영향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는 아동의 자기평가와 지각된 어머니 거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수용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은 아동의 자기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어머니의 거부를 높게 지각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과 멕시코 아동을 대상으로 한 Rohner 등(1980)의 연구에서 지각된 부모의 수용보다 부모의 거부가 아동의 성격 및 행동 경향성에 유의하게 더 큰 변량의 양을 설명한다는 결론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각된 어머니수용에서는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지각된 어머니거부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 즉 부모학력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어머니수용을 높게 지각하며, 여아보다 남아가 어머니의 거부를 높게 지각한다.

둘째, 아동의 자기평가는 성과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고 성별로 어머니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 남아의 경우는 중졸이하와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의 자녀보다 고졸 어머니의 자녀가 더 부정적으로 자기평가하며, 여아의 경우는 고졸이상 어머니의 자녀보다 중졸이하 어머니의 자녀가 더 부정적으로 자기평가한다. 이것은 아동의 자기평가에서 어머니

의 영향이 크며, 특히 남아의 경우에 고졸 어머니가 중졸이하와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에 비해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은 성과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고 어머니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된 무력감을 나타내는 정도가 낮다. 이로써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수용, 거부와 자기 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수용과 거부가 아동의 자기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는 자기평가와 지각된 어머니의 거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수용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써, 우리는 아동이 어머니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지각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지를 갖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자신의 능력으로 주변상황을 통제 할 수 없다는 통제 불가능성을 경험하게되어 결국에는 학습된 무력감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력감 척도가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연구대상이 일부 대구시내 국민학교 5, 6학년에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의 아동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양육행동과 자기평가 및 학습된 무력감이 자녀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과 세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각된 어머니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를 이해하는데 일련의 시사를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강완숙(198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

도 및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3)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4) 김성일(1993).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성격발달. 정신건강연구. 한양대 정신건강 연구소. 7, 82-109.
 5) 김영희(1989).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력감과 관계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6) 김정규(1989). 학습성 무기력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교육논총. 12, 37-56.
 7) 김해옥(1989). 학습성적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학업에 대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8) 백용매·김영환(1988). 통제불능경험에 대한 귀인이 과제수행과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 임상심리학회지, 7(1), 102-109.
 9) 신기명(1989).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무기력에 관한 연구, 학습무기력, 귀속원인,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건국대 대학원 논문집. 제29편.
 10) 신기명(1990). 학습된 무력감 진단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1) 이남기(1995).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유능감 간의 인과 관계. 효성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12) 이영주(1990). 부모의 온정, 통제 및 형제 자매 환경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 가정학회지, 28(2), 107-118.
 13)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성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4) 정휘정(1983). 가정의 심리적 과정과 성격 특성의 관계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5) 水口禮治(1985). 無氣力からの脱出, 東京 福村出版社.
 16) Abramson, L.Y., Seligman, M.E.P. & Teasdale, J.

- D.(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 17) Aoyanaki, K. 外(1984). Helplessness尺度作成の試み, (4)(5), 日本教育心理學會. 第26回總會發表論文集.
- 18) Campo, A.T. & Rohner, R.P.(1992).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ubstance abuse among young adult. *Child Abuse & Neglect*, 16, 429-440.
- 19) Diener, C.I. & Dweck, C.S.(1978). An analysis of learned helplessness : I. Continuous changes in performance, strategy, and achievement cognitions following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451-462.
- 20) Diener, C.I. & Dweck, C.S.(1980). An analysis of learned helplessness : II. The Processing of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940-952.
- 21) DiTosto, G.J.(1992). Reformulated attribution theory of learned helplessness : The relation among attribution style, childhood depression and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ton Hall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MI.
- 22) Dweck, C.S & Bush, E.S.(1976). Sex differences in learned helplessness ; I. Differential debilitation with peer and adult evaluators. *Developmental Psychology*, 12(2), 147-156.
- 23) Dweck, C.S., Davidson, W., Nelson, S. & Enna, B.(1978). Sex differences in learned helplessness : II. The Contingencies of evaluative feedback in the classroom. III. An experi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4, 268-276.
- 24) Dweck, C.S., Goetz, T.E. & Strauss, N.(1980). Sex differences in learned helplessness : IV. An experiment and naturalistic study of failure generalization and it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3), 441-452.
- 25) Eysenck, S. & 이현수(1985). 성격차원검사.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26) Fincham, F.D. & Hokoda, A.J.(1987). Learned helplessness in social situations and sociometric statu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95-111.
- 27) Fincham, F.D., Hokoda, A.J. & Reliford Sanders, Jr.(1989). Learned helplessness, Test Anxiety, and Academic Achievement : A Longitudi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60(1), 138-145.
- 28) Finney, J.C.(1961). Some maternal influences on children's personality and characte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y*, 63, 199-278.
- 29) Frankel, M & Rollins, H.(1983). Does mother know best? Mothers and fathers interacting with preschool sons and daugh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694-702.
- 30) Friedlander, S., Traylor, J.A. & Weisz J.R.(1986). Depressive Symptoms and attributional style in childr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4), 442-453.
- 31) Hoffman, L.W.(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s. *The American Psychologist*, 33, 644-657.
- 32) Homan, K.J.(1990). A Longitudinal analysis of learned helplessness in 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sota.
- 33) Hurlock, E.B.(1978). *Child Development*. 6th ed. N.Y. : McGraw-Hill.
- 34) Hwang, Jinyuan(1992).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failure and Learned helplessness in students with and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Colorado.
- 35) Kitahara, M.(1987). Perception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among Swedish University Students. *Child Abuse & Neglect*, 11(2), 223-227.
- 36) Maccoby, E.E.(1980).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 Harcourt Brace Jovanovich.
- 37) Richman, A.L., Miller, P.M. & Levine, R.A. (1992). Cultural and educational variations in maternal respons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614-621.
- 38) Robertson, J.F. & Simonds, R.L.(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1(1), 125-138.
- 39) Rohner, R.P.(1975). They love me, They love me not. : A worldwide study of the effect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New Haven, CT : HRAF.
- 40) Rohner, R.P.(1980). Worldwide test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1-21.
- 41) Rohner, R.P.(1986). *The Warmth Dimension*.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42) Rohner, R.P. (1990).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rev. ed.) Storrs, C.T. : University of Connecticut,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 43) Rohner, R.P., Saavedra, J.M. & Granum, E.O.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 Test Manual.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635.
- 44) Rohner, R.P., Hahn, B.C. & Rohner, E.C.(1980). Social class differences in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self-evaluation among Korean American children.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55-66.
- 45) Rohner, R.P. & Pettengill, S.M.(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46) Rothbaum, F.(1986). Patterns of maternal acceptance.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2(4). 435-458.
- 47) Seligman, M.E.P., Maier, S.F. & Geer, J.H.(1968). The allevi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in the do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3, 256-262.
- 48) Symonds, P.M.(1939). *The psychology of parent child relationships*. NY : Appleton-Century.
- 49) Venard, M.L.(1993). *Depression, Learned Helplessness, and Perceptions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 Comparisons between Homeless and Hous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LA.
- 50) Weisz, John R.(1981). Learned helplessness in black and white children identified by their schools as retarded and non-retarded : Performance deterioration in response to failure.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499-508.